말씀

자연공원 문화인식의 확산을 위하여

- 「국립공원문화운동」을 제창한다 -

오 휘 영 〈 국립공원협회 회장 〉

당면한 국립공원의 과제

요즘 들어 생태환경이니, 환경mind니 하는 말들이 사람들의 입에서 쉽게 쏟아져 나오고, 자연환경을 보존하기 위한 노력들이 다각도에서 추진되고 있다. 다행스럽고 한편으로 씁쓸한 일이다. 환경에 대한 높은 관심이 도리어 환경의 피폐성을 반증하고 있는 것으로 느껴지기 때문이며, 물 걱정, 공기 걱정없이 태평하게 살던 그 시절은 영영 멀어진 것인지 하는 안타까움이 앞선다.

그런데 환경보존에 대한 관심과 염려들을 찬찬히 들여다보면 너무 한 방향으로만 집중되고 있다는 인상을 지울 수가 없다. 자연·생태·환경과 관련된 무수한 단체들의 활동이, 지키고 보존해야 할 구체적인 대상에만 국한되어 있다는 것이다. 댐 공사를 저지해서 강을 흐르게 하고, 터널 굴착을 반대해서 산의 생태를 숨쉬게 하고, 조류, 야생동물, 초화류 등을 보호해서 종다양성을 유지하는 데만 몰두할 뿐, 정작 강물에 발을 담그고, 산에 오르고, 야생동물과 초화류를 직접 대하는 일반인의 태도에 대한 관심은 부족하지 않나 하는 생각이다. 물론 앞에서 말한 저지하고 반대하는 일들은 조만간 회복불능 상태에 빠지게 될 지도 모를

우리 산하에 반드시 필요한 움직임이다. 다만 그런 운동과 더불어 오늘을 사는 일반인의 의식을 점진적으로 전환시킬 수 있는 별도의 노력이 절실하다는 것이다.

소백산 국립공원에서 멧돼지를 밀렵하던 수렵꾼을 검거했다던가, 한라산 국립공원에서 야생노루들을 포획하기 위한 올가미 6개가 잇따라 발견되었다던가하는 뉴스를 접할 때마다, 결국 자연환경을 보존하는 가장 확실하고 효과 있는 기본적인 방법은 일반시민들의 의식전환이라는 생각이 더욱 굳어지게 된다. 그리고 일반시민들의 범주에는 일부 몰지각한 사람들만이 속하는 것이 아니라, 자연을, 나아가 국립공원을 유원지로 인식하고 있는 수많은 국민이 해당되는 것이 아닐까 싶다.

국립공원 설악산에 어느 하루 2만 4천여명의 관광객이 몰려 단풍구경을 했다는 사실이 감상적인 멘트와 함께 뉴스로 방송되는 사회 분위기에서 대다수의 국민들은 '국립공원 = 유원지'로 받아들이고 있다. 산에 오르면 당연히 정상을 정복해야 직성이 풀린다는 등산객들, 아니면 경치 좋은 곳에 돗자리 하나 깔아놓고 먹고 마시는 유흥객들, 담배꽁초나 휴지, 제과껍질을 무심하게 던져버리는 사람들, 모두가 자신들도 모르게 국립공원을 병들게 하고 있는 것이다.

국립공원을 국가에서 지정한 산행하며 놀기위한 공간으로 인식하는 사회분위기가 혁신되지 않는 한, 어떻게 자연환경이 보존될 수 있겠는가? 그래서 우리 국립공원협회에서는 앞으로 국립공원의 귀중한 자연환경을 보다 효과적으로 보호하고 보존하기 위해 탐방객들에게 국립공원의 진정한 가치를 인식시키는 작업을 전개 해나가야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한다. 이를 위하여 본 협회의 자연사랑운동의 구체적 실천목표가 일반대중에게 보다 쉽게 인지 될 수 있는 "국립공원문화운동본부"를 본 협회의 별칭으로 활용할 것을 제의하고자 한다.

왜 문화운동인가

거창하게 '국립공원문화운동본부'라고 칭해보았으나, 뜻은 다른데 있지 않고 문화의 말뜻을 제대로 한번

살려보자는 데 있다. 흔히 알려진 바와 같이 문화(Culture)의 어원은 경작(Cultivation) 에 있다. 씨 뿌리고 거름주고 잘 가꾸어서 결실을 얻는 것. 바로 그와 같은 방법과 태도 그리고 그로부터 얻게되는 결과의 과정을 우리의 국립공원보전운동에도 실천해 보자는 것이다.

다시 말해서, 탐방객들에게 서서히 국립공원의 소중함을 알리고, 보존의 중요성을 스스로 깨닫게 하므로서, 드디어는 다양한 자연 생태계가 모든 탐방객들에 의하여 소중하게 보존되도록 해보자는 말이다.

그렇다면 어떤 씨앗을, 어떻게 뿌릴 것인가 하는 문제가 남게된다.

지난 해 '국립공원관리공단'에서 밝힌 국립공원 등반 또는 야영의 예약제, 야간등반제한, 산불 위험이 높은 주요 등산로에 대한 입산통제 등과 같은 제한 조치 이외에 앞으로 '국립공원협회'에서 시행할 예정인 북한산 국립공원 환경프로그램의 실천이 그 씨앗이 될 수 있지 않을까 한다. 이 프로그램은 국립공원을 단순한 등산이나 쾌락의 장소가 아닌 진정한 자연·생태·문화의 학습장으로 전환하기 위해 마련된 것으로, 숲·수목·암석 탐방로, 야생화 탐방로, 역사·문화 탐방로 등 5개 주제를 중심으로 6개 탐방코스를 설정해 각 코스에 따라 협회소속 전문가가 인솔하면서 해당 탐방그룹에게 안내·해설을 하는 것이다. 그럼으로써 테마별로 국립공원에 대한 흥미와 새로운 인식이 고양되고, 국립공원 이용 패턴도 점진적으로 변화되도록 유도하자는 것이다. 이 프로그램이 우리 나라에서 어느 정도 실효를 거둘 수 있을지는 아직 미지수이지만, 최소한 훌륭한 씨앗을 늦게나마 뿌리게 되는 성과는 있을 것으로 생각한다.

지난해 우리 나라 국립공원 이용자수는 대략 2천 1백만명 정도라고 한다. 전 국민의 거의 절반 정도가 한번씩은 이용을 한 셈이다. 그러나 이용률이 결코 국립공원에 대한 애정과 비례하지는 않으며, 오히려 국립공원에 폐해가 되는 엄청난 숫자이다. 현재 국립공원에는 국내포유류의 약 75% 파충류·양서류의 70%, 조류·담수어류의 71%가 서식하고 있고, 특히 천연기념물 71%를 비롯,

희귀·멸종위기 동식물의 대다수가 서식하고 있다. 이와같은 생물들이 그 많은 사람들의 탐방으로 얼마나 시달렸겠는가 하는 것은 굳이 이 자리에서 언급할 필요가 없다. 그렇다고 국민들의 탐방욕구를 무작정 제한 할 수도 없는 노릇이고 보니, '국립공원문화운동'의 필요성은 더욱 절실해진다.

아무리 많은 사람들이 찾아도, 모두가 자연에 대한 애정을 갖고 풀한 포기, 암석하나를 소중히 여긴다면 자연은 반드시 지켜질 것이기 때문이다. 그리고 무엇인가를 소중히 여기는 사랑의 마음을 키우기 위해서는 국립공원의 진정한 가치를 지속적으로 알려야 한다. 무엇이 천연기념물이고, 야생화의 이름은 무엇이고, 저 곤충들의 생태는 어떠하다라는 사실을……. 자연이 살아야 우리의 삶도 가치가 있다는 단순하지만 틀림없는 명제를……

우선 금년부터 실시되는 환경해설 프로그램의 실천으로부터 시작하여, 본회 청소년 자원봉사단을 중심으로 보급 확산될 젊은이의 국립공원 탐방행군, 전국 초·중등학생들이 참여하는 국립공원주제의 미술, 수필, 동시 등의 문예활동, '엄마와 함께 가는 어린이 국립공원 순례'……등 국립공원 문화운동이 활발하게 전개, 정착될 수 있기를 기원하며, 앞으로 이 문화운동이 보다 다양하고 광범위하게 여러 주제를 설정하여 확대될 수 있도록 회원 모두의 지혜와 적극적 참여를 당부하는 바이다.

알 림

● 국립공원을 사랑하는 사람들의 「국립공원문화」가 여러분의 글을 기다립니다. 200자 원고지 15매 정도 분량의 원고와 함께 사진을 보내주시면 정성껏 실어 드리겠습니다.

☞ 보낼 곳

전자우편 : 천리안 NPKA2420
하이텔 NPKA2420

FAX : 912-4243

우편 : 서울시 성북구 정릉4동 산 1-1 국립공원협회